

장례식 매너 2

-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참례하는 방식이 다르다 -

여기서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방법 등 각종 일본식 매너들을 소개한다.

□ 장의(장례) 참례 방식

- 장의에 참례할 때는 독경이 시작되는 10분 정도 앞에는 도착하는 것이 예의이다.
- 접수계에서 부의를 낼 때 접수 담당자에게 「このたびは、ご愁傷様です」라고 말하여 보자기로부터 부의봉투를 꺼내어 담당자에게 전달한다.
- * 그 후 방명록에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여 담당자에게 가볍게 일례를 한다.

(접수가 있는 경우)
상대방에 정면을
향하여 내민다.



(접수가 없는 경우)
자신 측에 정면을
향하여 올린다.



- 방에 들어가 선객이 있으면 일례, 그리고 상주 유족에게 일례와 간략하게 후회를 말하여 자리에 앉는다. 「このたびは、ご愁傷様でございます。心からお悔やみ申し上げます」
- 제단의 정면으로 승려, 우측으로 상가가 착석, 일반 조문객은 제단으로 향해 좌측의 앉는다.
- * 장례에서는 특히 석차는 구매되지 않지만, 자기보다 연배의 사람이 많으면 뒤에 앉는 것이 무난하다. 미리 석차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안내 대로에 착석한다.

- 장례식이 끝나면 고인과 특히 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가벼운 연회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다. 「通夜ぶるまい」라고 한다.
- 공양 정화 조문의 답례 등의 의미도 있지만, 고인과의 마지막 식사이므로 유족으로부터 권유 받으면 한입이라도 먹어주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.
- * 식사 후 길게 머무르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예의이다(15분~30분).

□ 고별식 참례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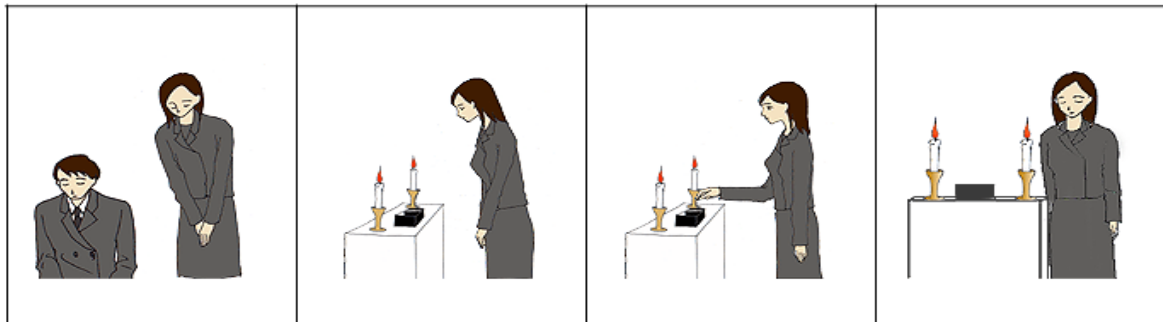
- 접수에서의 작법이나, 석차, 분향의 방법 등은 장례와 거의 같다.
- 거래처 관계자일 경우,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직급자가 장례식에 참석한다.
- 식장계가 유도해주면 거기에 따른다. 식장계가 없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로 착석한다. 좌석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통상 선착순이므로 차례로 착석 한다.
- 식장에는 큰 짐은 반입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다. 가방이나 코트가 있는 경우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. 한번 착석하면 자리 이동을 조심해야 한다.
- 짐이나 코트는 벗고 나서 접수한다. 보관소가 있는 경우, 귀중품 이외를 맡기도록 한다.
- 유족에게 일부러 서서 인사할 필요는 없다. 시선이 마주치면 목례 하는 정도이다.
- 접수계에 깊게 일례 하며 「このたびは、ご愁傷様でございます。心からお悔やみ申し上げます」라고 말해 부의나 공물을 지참하고 있으면 방명록에 기입해 접수계에 건네준다. 만약 장례 때 등에 부의를 건네주었을 때는 재차 지참할 필요는 없다. 접수에서는 기장만 한다.

□ 장례식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단어

- 「重ね重ね」 「たびたび」 : 연쇄적 불행을 상상시키는 단어이다.
- 「浮かばれない」 「迷う」 : 불교식에서는 불행이나 고뇌를 의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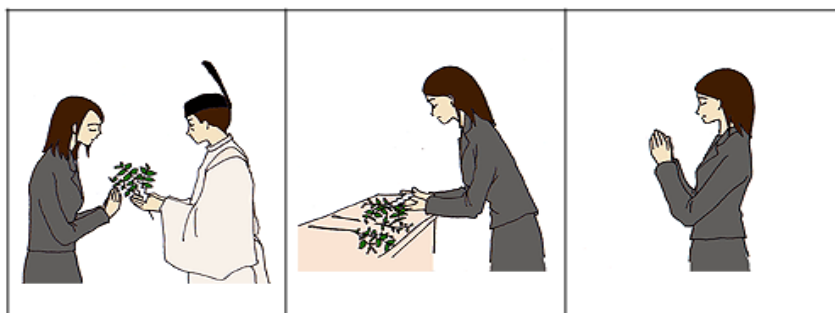
□ 조문 방법

- 불교식: 立礼焼香,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



1. 순서가 오면 다음 사람에게 가볍게 일례하고 영전 앞으로 간다.
2. 영전 앞에서 상가에게 묵례하고 영전에도 일례를 한다.
3. 분향을 눈 가까이에 댄 후 다시 향로에 떨어트린다. 이것을 3번 반복하여 합상한다.
4. 끝나면 상가와 승려에게 일례하여 자리에 돌아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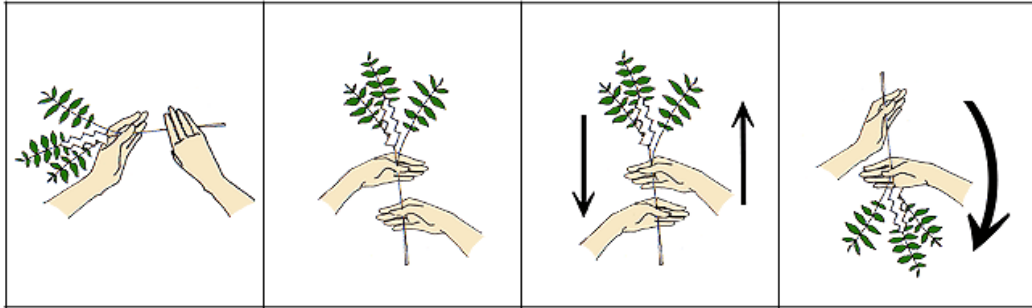
- 신도식: 玉串奉奠



1. 상가에게 일례하고 신관 앞에서도 일례한 후 玉串를 받는다.
2. 玉串를 받으면 다시 신관에게 일례한다. 작법에 따라 玉串를 영전에 놓아 깊게 두 번 일례한다.

3. 한걸음 뒤에서 두 번 절, 두 번 박수한 뒤 일레한다. 박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한다. 끝나면 신관과 상가에게 일레하고 자리에 돌아간다.

<玉串 받는 방법>



<기독교식: 헌화>

